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미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10. 현재 122개 업체 및 기타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자원,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향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중국 Wuhu항 터미널 확장 계획	2
□ 인도, 13개 주요 항만 확장 계획 발표	3
□ 남아공 Imperial社, 남부 아프리카 물류 활동 확대	4
□ 프랑스 Geodis Wilson社, 중서부 아프리카 진출	5

*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이진주 연구원(02-2105-2982, jinjoo@kmi.re.kr)

□ 중국 Wuhu항 터미널 확장 계획

- 2010년 9월 중국 안후이 성 남동부의 Zhujiqiao에 위치한 Wuhu항¹⁾의 운영사인 Wuhu Port Storage & Transportation은 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 계획을 발표함
 - 2단계에서는 터미널 면적 177백만m²를 포함한 총 5,000톤급 3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임
 - 이 계획을 통해 Wuhu항의 연간 처리능력은 174만 톤(컨테이너 80만TEU)으로 확대될 예정임
 - 투자 규모는 516백만 위안(약 7,737만 달러)로, 확장 후 연간 90백만 위안(약 1,350만 달러)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Wuhu항에는 철제품 유통 기지가 건설될 예정으로 투자 규모는 50백만 위안(약 750만 달러)이며, 연간 18백만 위안(약 270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중국 철도부 산하의 China United International Rail Container Company는 양쯔강 지역에 내륙 철도 연계 강화를 위해 18개의 컨테이너 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2012년 완료될 예정임
 - 이 개발을 통해 양쯔강을 이용한 내륙 연계 서비스가 확대되어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양쯔강 지역 물동량은 2010년 9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820,000TEU를 기록했으며, 2010년 1~9월 물동량은 동기 대비 29.1% 증가한 663만TEU를 기록함

<Wuhu항 위치 및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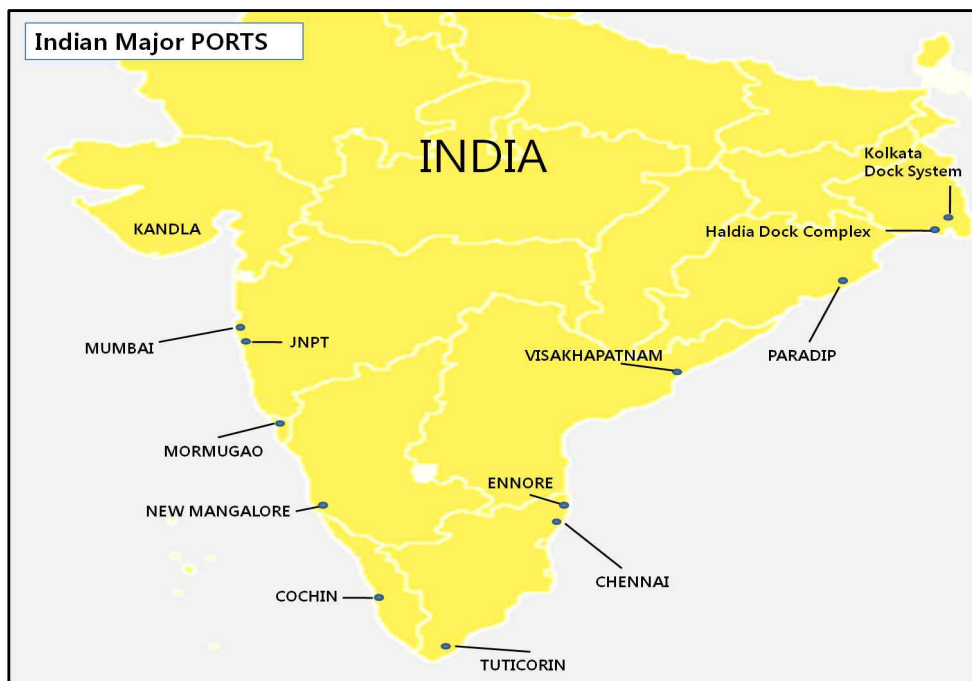
자료: Dredging Today, 2010.9.20. / CI-Online.

1) 양쯔 강[揚子江]과 양쯔 강의 지류인 북쪽의 위시 강[裕溪河], 남쪽의 칭이강[靑弋江]과 수이양 강[水陽江]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어, 예부터 매우 중요한 교통 중심지이자 전략적 요지임

□ 인도, 13개 주요 항만 확장 계획 발표

- 2010년 9월 인도 해운부(Ministry of Shipping)는 13개 주요 항만²⁾의 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총 276개의 프로젝트(군소 200여개 항만 개발 계획 포함)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총 20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³⁾
- 이중에서 기존에 14억 달러 규모의 24개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항만 하역능력 확대를 위한 22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입찰 단계에 있으며, 연내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임
 - 사업방식은 PPP(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방식으로 투자규모는 약 36억 달러임
- 민관협력 사업은 인도 항만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현재 싱가포르 항만공사나 DPW 등이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입찰 완료 후 투자 여건에 따라 28억 달러 규모의 19개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진행 할 예정임
-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 항만의 처리 능력은 2004년 694만 GT에서 2009년 1,000만 GT를 넘어섰으며, 향후에도 신규 터미널, 방파제, LNG 설비, 벌크선 건조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Vallarpadam항, Chennai항, JNPT항, Ennore항의 Mega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및 준설작업 등

<인도 주요 항만 위치>



자료: Dredging Today, 2010.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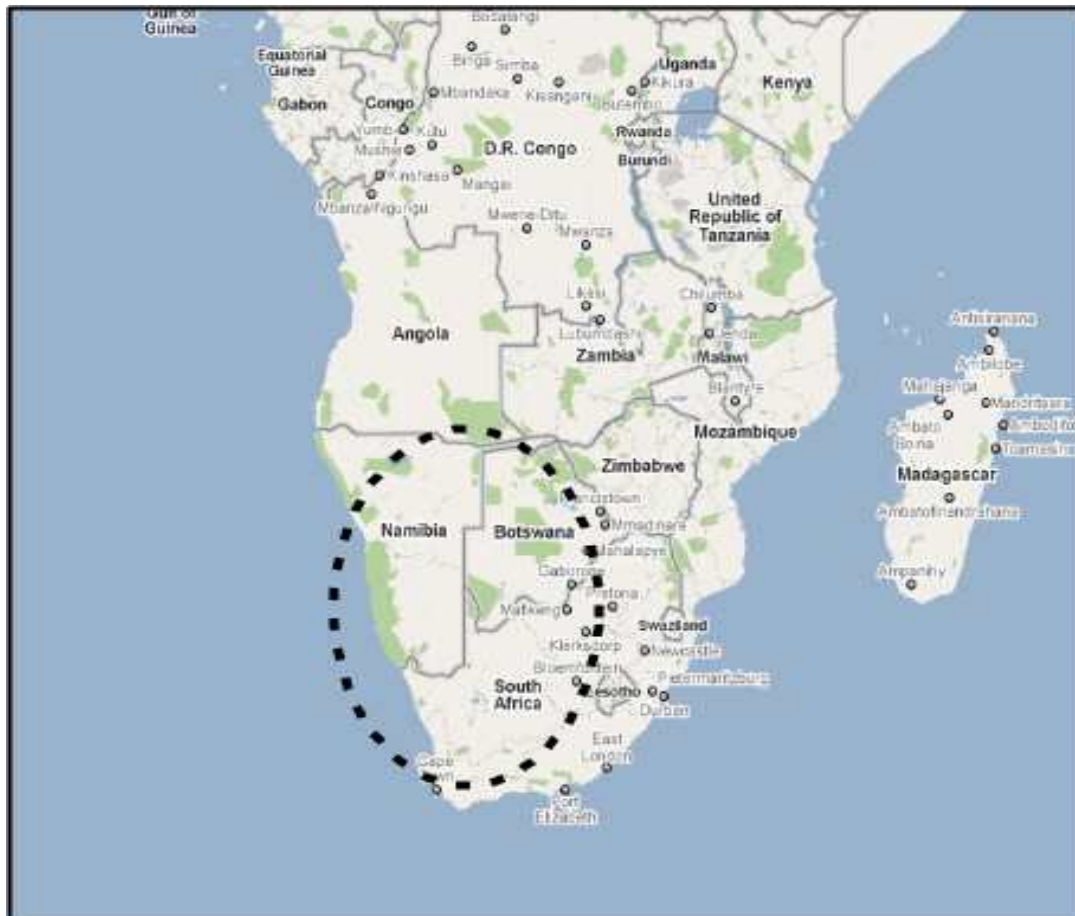
2) Kolkata, Haldia, Paradip, Visakhapatnam, Chennai, Tuticorin, Cochin, New Mangalore, Mormugao, Jawaharlal Nehru, Mumbai, Ennore, Kandla

3) 이는 2007년 3월 발표된 11차 5개년 개발 계획(2007~12)개발 계획의 항만 분야의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인도해운청의 PPP 프로젝트 참조(<http://shipping.nic.in/>)

□ 남아공 Imperial社, 남부 아프리카 물류 활동 확대

- 2010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통그룹인 Imperial Holdings사는 아프리카 서부 Namibia의 유통 및 창고회사인 CIC Holdings사⁴⁾를 인수하면서 남부 아프리카 물류 활동을 확대하고 있음
 - Imperial사에 의하면, CIC사는 다수의 현지 및 외국의 제조업체와 유통계약을 맺고 있으며, 전 범위에 걸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CIC社は Imperial사의 소비자 물류 부문으로 편입되어 Imperial사가 남부지역 물류 시장의 블루칩인 FMCG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지원하게 될 것임
- Imperial사는 CIC사가 보유한 남부 아프리카 유통시장에서의 영향력, 브랜드 가치, 높은 운영 수익 등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전략적 인수 기준에 적합한 업체라고 밝힘
 - 따라서 이번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 제공 서비스 확대 그리고 그룹 내 인력 수급의 최적화 실현을 기대하고 있음

<Namibia 위치>



자료: CI-Online, 2010.7.14.

4) CIC社は 주로 일용소비재(Fast Moving Consumer Goods)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물류 거점인 Namibia를 중심으로 Botswana, Swaziland and Mozambique를 포함한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 Geodis Wilson社, 중서부 아프리카 진출

- 2010년 7월 프랑스의 화물운송 업체인 Geodis Wilson사는 코트디부아르의 내륙운송 전문 업체인 SIVOMAR사⁵⁾와 합자하여 Movis International사를 설립함
 - 합자회사의 지분율은 SIVOMAR가 60%, Geodis가 40%임
- Movis사는 Geodis사의 화물관리 솔루션을 통한 시장 가시성과 SIVOMAR사의 내륙 물류 네트워크를 결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활발한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업 영역 확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Movis사는 두 업체의 주요 시장인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세네갈(Senegal), 카메룬(Cameroon), 차드(Chad), 말리(Mali), 니제르(Niger) 그리고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향후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해 Gulf of Guinea에도 진출 할 계획임

* Geodis社가 1998년에 아프리카에 진출한 반면 SIVOMAR는 1973년부터 사업을 시작함

<Movis International 주요 활동지역>



자료: CI-Online, 2010.7.2.

남경오 연구원 ☎ 02-2105-2929, reinhard79@kmi.re.kr

5) Societe Ivoirienne d'Operations Maritimes